

학습만화와 저학년문고 성장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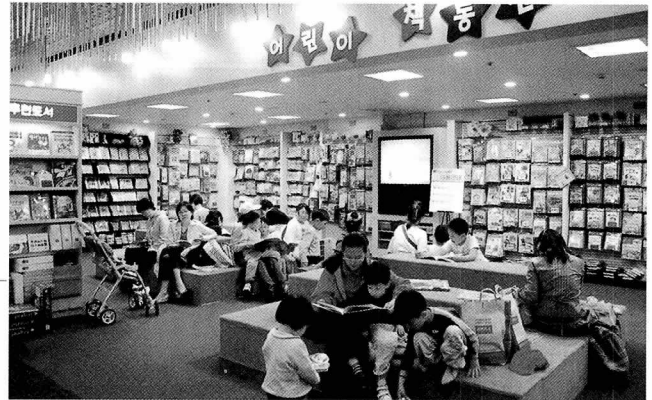
통계로 들여다본 2002년 상반기 어린이책 시장

어린이책 시장은 올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보문고 종로점 1/4분기 어린이책 매출액은 32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정도 늘었다(전체 매출은 10% 성장). 영풍문고도 종로점 5.6%, 강남점 19.7%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인터넷 서점은 훨씬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알라딘과 와우북의 어린이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9%, 85% 올랐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 3%씩 커졌다. 예스24 마케팅 팀장 권승아씨는 “올 상반기 매출에서 어린이/유아 부문이 문학을 제치고 매출 비중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단행본, 전집 시장 골고루 성장해

어린이책 시장의 성장세는 출판계 전반에서 1차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1/4분기 납본도서 목록을 보면 아동 분야가 지난해 976종에서 1,732종으로 80% 가량 증가했고, 발행부수는 3백만부에서 6백6십만부로 120% 높아졌다. 전체 납본도서가 8,662종에서 9,531종으로 10% 남짓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세다. 출판사 수 증가, 단행본 기획물 강세, 전집류 대량 출하 등이 중수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교원, 계몽사, 금성출판사, 한국몬테소리 등에서 펴낸 전집물이 전체 출간 중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집은 아직 95% 이상 방문판매한다. 단행본 시장의 활성화에도 전집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로는 대개의 전집류가 지능과 인성, 창의력 등을 단계적으로 높여주도록 교육 프로그램화돼 있어 학부모들에게 여전히 큰 매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단행본의 경우 분야별로 보면 학습만화와 창작동화가 여전히 양대 산맥으로 군림하고 있다. 올 1/4분기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보문고(총22종)는 문학 15종, 만화 4종, 교양 3종, 영풍문고(총46권)는 문학 17종, 만화 15종, 교양 7종, 그림책 7종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하고 있다. 《오페라의 유령》《가시고기》《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성인 베스트셀러들의 아동·만화 버전도 눈에 많이 띈다. 영풍문고 종로점의 분야별 매출현황을 보면 아동문학, 저학년문고, 그림동화, 추리/공포 분야는 10~30% 가량 성장한 반면 동시와 과학, 환경, 글짓기, 속담, 영어교재 등 논픽션 분야는 최고 39%까지 하락하는 등 창작물이 강세다. 가장 크게 신장한 분야는 만화로 종로점은 58%, 강



전체 도서시장에서 어린이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어린이책 매장.

남점은 108%나 뛰었다.

베스트셀러도 판매부수에 따라 분야별 편차가 심하다. 어린이책 전문유통업체인 서당과 한국출판유통, 송인서적의 올 1/4분기 출고부수 상위권을 보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제9권이 2만3천부 팔려나간 데 비해 석달 내내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던 《열두살에 부자가 된 키라》의 경우 6천부에 그치고 있어 만화와 여타 장르의 큰 차이를 드러냈다. 그리고 《나쁜 어린이 표》(1만8천부), 《초대 받은 아이들》(1만2천부), 《우동 한그릇》(6천5백부),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5천5백부) 등 스테디셀러 출하량이 해당 기간 베스트셀러들의 판매부수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서점 활성화 등으로 매출액 증가해

어린이책 출판사들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올랐다.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진선출판사(40%), 미래M&B(27%), 보림(20%), 웅진출판(10%), 국민서관(10%) 등 대부분 출판사들이 매출액 호조를 보이고 있다. 출판사측은 상승 요인으로 인터넷 서점과 할인마트 활성화, 도서관 및 공공기관의 도서구입 증가 등을 꼽는다. 판매경로별 출판사 매출 실적에서는 서점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체 시장에서 서점의 비중은 평균 65% 정도다. 그 뒤를 인터넷 서점, 할인매장·납품, 대여점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서점들의 통폐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인터넷 서점의 가파른 성장곡선도 어느 정도 무뎠던 터라 이 비율이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게 영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들이 호황을 누리는 반면, 어린이 전문서점 등 소형매장의 매출은 지지부진하다. 인터넷 서점, 할인마트, 납품 등이 어린이서점 매출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일산 동화나라, 화곡 동화나라, 청주 책나라 등 몇몇 규모 있는 곳만 현상 유지할 뿐,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서점은 원주 키즈북하우스처럼 인터넷 매장을 마련하거나, 철저한 상담 판매, 공연·전시·모임 등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강성민기자